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2022년 한국에서의 안식년 중, 글을 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섭리 속에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믿음으로 병나음과 회복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보냅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제주의 한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치료와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선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인도하셔서 좋은 만남과 치료와 생명의 양식으로 영육을 회복 하십니다. 기도 중에 주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학2:9)는 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광 육에 온전한 변화와 그 분께서 부어 주실 영광을 기대합니다.

순종과 행함을 통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 들어온 후 소식을 잘 전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간 형편상 연락을 하거나, 소식을 전할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대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역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을 믿고, 또 저희 또한 치료와 회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은 병원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해 주십시오.

별써 한 해가 지나갑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고, 재림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크로아티아에 있는 이들과 남겨둔 사역을 위해 잠시 기도 부탁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 드림

2022. 12. 16.

